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준식(김정연B) 김하나 김형국(이오순) 박권재(송영숙) 박복례 박순자(이동수) 박은숙(경양학) 배세영(이경순) 석형기(이희순B) 송미선 송부현(김영진) 오귀숙 유은자 윤병호(양영욱) 이근자 이미지 이상희 이영순 이필숙 전순봉 조규래 주경덕(이경자) 지상건(이복천) 최상걸(이미향) 최정규(김미영) 황영욱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경엽(손정아) 김지한(유소정) 박복례 박복순(김대준) 박부용(최귀남) 박성대 유은자 윤정호(유옥자) 이경순(배세영) 이경자(주경덕) 이근자 이영순 이옥남 이필숙 이향교 이희순B(석형기) 추재호 황영욱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재 김경엽(손정아) 김기택(배숙자) 김병율(이영숙) 김영애 김정연B(강중식) 김정자 김춘화 김현욱 박권재(송영숙) 박금업 박복례 박부용(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희성 배세영(이경순) 백성원(안지영) 석형기(이희순B) 성미영(박영숙) 엄영분(천세력) 유은자 윤예원 윤정자(최성현) 이경자(주경덕) 이미지 이필숙 이한철(박희영) 장성자 전순봉 정대성 하세련 한공순

###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방복순 백경자 심순옥 양영욱 양일석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희 이소은 이승애 이아련 이옥남 이진우 정승현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무 명

## ♣ 월정헌금

## 주간 성경연구

33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b>주 일</b>	창세기 7장 13절 ~ 24절		
<b>월요일</b>	창세기 8장 1절 ~ 12절	<b>목요일</b>	창세기 9장 18절 ~ 29절
<b>화요일</b>	창세기 8장 13절 ~ 22절	<b>금요일</b>	창세기 10장 1절 ~ 32절
<b>수요일</b>	창세기 9장 1절 ~ 17절	<b>토요일</b>	창세기 11장 1절 ~ 9절

<b>원로장로</b>	이태일 정기성		
<b>시무장로</b>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b>은퇴장로</b>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b>교역자</b>	<b>부 목 사</b>	김재호	
	<b>전 도 사</b>	이필레	
	<b>교육전도사</b>	김선희	
<b>찬양대</b>	<b>지휘자</b>	할렐루야 : 김하나 혼산 나 : 김안나 시온·애먼 : 최원지	
	<b>반주자</b>	<b>오르간</b>	심혜윤
		<b>피아노</b>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b>클라리넷</b>	박진숙 이난수
		<b>플룻</b>	김민지
	<b>솔리스트</b>	김안나, 김정아	
<b>선교사</b>	<b>파송선교사</b>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욱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민숙 A X국 : 김해월 A X국 : 이분옥 무장비크 : 홍두표 강순영
	<b>협력선교사</b>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맥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b>협력교회</b>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b>협력단체</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합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8. 07.

<b>위로하는 일의 어려움</b>	
<b>읍기 5장 1~16절</b>	<b>설교: 이진우 목사</b>

고난 속에 있는 옴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옴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하여 옴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울며 자기의 걸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 일 동안 옴과 함께 땅에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옴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옴을 괴롭게 하는 책망이요 질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재앙의 원인이 옴에게 있다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을 당한 옴에게 적절치 않은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때, 어떠한가 하는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성립하지 않는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 옴의 친구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 속에 분노하는 옴을 향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을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언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옴에게 사실 너무나 가혹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재난을 당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백성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건달 수 없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사울 왕은 이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삼 전제를 걸고 행하다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고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고난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결과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또 다윗이나 엘리야도 모두 약한 자들일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역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치부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임한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 실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2.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옴에게, 만약 자신이 옴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일을 의탁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권면은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위로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건낼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8절 이후에 이어진 엘리바스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속에 옴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깎으셔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결국 옴이 바로 그런 교활한 자라는 말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자식들”을 운운한 앞선 구절은 모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옴에게 더더욱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옴을 위로하기 위해 먼 곳에서 친구들과 약속까지 하고 먼 길을 찾아와 함께 울며 슬퍼했던 엘리바스에게 옴에 대한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한들, 사라 길지 못했던 그의 말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되어 옴의 마음을 찌르듯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혹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고 말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물론 분명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신중히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자의 마음의 진실함을 느낄 때 더욱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상대의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며 말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려는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고난당 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위로하는 자의 그 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먼저 위로 하는 자들은 고난당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오직 하나님께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의탁하여,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입장과 고통을 100퍼센트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축성을 잘 하며,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서 고난 속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성도는 고난당한 자들 앞에서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지체의 모든 고난을 아뢰며, 은혜와 평강이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간구, 기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33

2022. 08. 14.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b>동산의 샘</b> A garden fountain	<b>생수의 우물</b> A well of living	<b>흐르는 시내</b> Flowing streams (아가 4:15)
<b>담임목사</b> Senior Pastor	<b>이진우</b> Yee, Jin Woo	
<ul style="list-style-type: none"><li>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li> <li>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li> <li>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li> <li>팩 스: 2689-1230</li> <li>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li></ul>		

